

전남도 F1조직위 10년만에 청산한다

영국 F1 매니지먼트사와 위약금 문제 마무리 2022년 청산 나서 4년간 대회 치르며 누적적자 1902억...대회 주관기구 사라져

전남도가 F1(Formula One)대회조직위원회를 청산한다.

지난 2009년 12월, 문화체육관광부 승인을 받아 F1대회의 준비·운영·지원 업무를 맡는 공식기구로 설립된 뒤 10년 만에 청산을 추진키로 하면서 '영국의 F1'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절차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21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도 F1대회조직위원회(F1조직위)는 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 대회 주관사인 FOM(Formula One Management)과의 위약금 문제가 마무리되는 2022년 이후 조

직위원회 청산 절차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F1조직위가 2015년 대회 미개최에 따른 계약 위반을 들어 위약금 지불을 요구한 FOM과의 계약당사자인 만큼 영국법상 채권소멸시효(6년)를 넘기는 2022년까지 FOM의 위약금 문제 제기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위약금 문제를 마무리할 수 있어 청산 절차에 들어간다는 게 전남도 입장이다. FOM은 지난 2016년 5월 5차 협상 결렬(FOM 위약금 1150만달러 요구 → 수용불가 통보) 이후 새로운 제안이 없는 상태로, 사실상 위약금 분쟁이 종

료됐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렇게되면 지난 2009년 F1대회지침법에 따라 설립된 뒤 4년간 F1대회를 치르며 1902억원의 누적 적자를 기록, '혈세 먹는 하마'라는 비판을 받았던 대회 주관기구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F1조직위는 4년간 대회를 치르며 연간 16만2000명씩 64만7000명의 관람객을 '전남 영암'으로 불러들이는 성과를 올렸고, 전 세계 185개국에 중계되면서 전남을 세계에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점에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열악한 재정여건과 중앙정부의 제한적 국비지원으로 대회 개최비용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모터스포츠 저변이 열악한 국내 여건을 극복하지 못해 티켓 판매와 광고, 기업 스폰서 확보 등에 실패하면

서 4년간 누적 적자만 1902억원을 냈다.

전남도 역시 F1대회를 개최하면서 2848억원의 지방채를 발행, 내년부터 2029년까지 갚아야 할 빚이 1150억원에 달한다. 이 때문에 남해안 일대를 동북아 관광 허브로 개발, 지역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기 위한 '영암-해남 관광중심형 기업도시' 선도사업으로 추진됐던 F1대회가 오히려 미래 신규 성장 동력에 대한 투자를 저해하는 걸림돌이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전남도는 F1조직위 청산에 앞서 F1 명칭이 새겨진 도로명판(100개)을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하는가 하면, F1 경주장 내 경주팀원들이 머물렀던 팀빌딩과 패독(paddock) 빌딩을 리모델링해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김지서 기자 dok2000@kwangju.co.kr



스카치 전복·매콤낙지버거 '잘 팔릴 거야'

전남어촌특화센터, 함평·해남·보성 부녀회원 광주서 상품화 교육

전남 어민들이 광주의 청년 셰프들과 싱싱한 전남 수산물로 만든 바지락 슌썰, 스카치 전복, 매콤낙지버거 등 다양한 음식을 개발해 판매할 예정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는 21일 "함평 석두, 해남 송호, 보성 석간 등 3개의 어촌계 부녀회원 9명이 광주에 있는 한국조리사 협회중앙회 광주-전남지회를 찾아 상품화를 위한 마지막 교육을 받았다"고 밝혔다.

함평 석두-해남 송호 어촌계와 보성 석간 어촌계는 지난 7월 27일과 8월 2일 피서객들을 상대로 바지락 슌썰, 스카치 전복, 매콤낙지버거 등에 대한 시식회를 가졌다.

이들 음식은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가 한국조리사협회중앙회 광주-전남지회에 의뢰해 이봉선(43·동강대 호텔조리영양학부 교수)·오명진(32·광주요리학원장)·남예니(여·32) 셰프 등이 공동개발했다. 시식회 과정에서 지적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한 뒤 이날 각 어촌계 부녀회원들이 참석해 요리 시연 및 실습 시간을 가졌다.

함평 석두 어촌계 장정희(여·61)씨는 "요리사들이 알려준 레시피로 연습했으나 실패를 거듭했는데, 마지막 교육을 받고 자신감을 얻었다"며 "함평 돌머리해수욕장을 찾은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주민들이 직접 판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남 송호 어촌계, 보성 석간 어촌계도 스카치 전복, 매콤낙지버거를 마을식당의 주메뉴로 하기로 했다.

오명진 광주요리학원장은 "어민들도 쉽게 만들 수 있는 레시피로 구성했으며, 젊은층을 주타겟으로 해 누구나 간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했다"며 "이들 음식이 어민 소득 향상에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는 전남 어민들이 생산한 수산물을 직접 요리한 뒤 판매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올해 '남어전담(南漁珍談, 남도 어촌의 진미를 담다)' 프로그램 마련해 추진했다.

최연수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센터장은 "어민과 방문객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메뉴 개발을 꾸준히 지원할 예정"이라며 "수산물의 가공·유통, 어촌관광 및 마케팅 등을 통해 6차 산업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전남 어촌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사랑의 행복 온도탑 제막식

21일 오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희망 2020 나눔 캠페인' 사랑의 행복 온도탑 제막 행사가 열리고 있다.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내년 1월 말까지 53억4천900만원을 목표로 성금 모금에 들어갔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전남도 구제역 백신접종 강화

연말까지 116억 들여 전 농가 100% 지원

전남도는 구제역 발생 위험이 높은 동절기를 맞아 연말까지 2개월 동안 항체 형성 수준검사를 실시해 미흡 농가를 엄격 조치하는 등 백신접종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9월 경기지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민·관의 총력 차단방역에 따라 상대적으로 구제역 백신접종에 소홀할 우려가 높아진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100% 백신접종을 유도하기

위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도비 21억원을 투입하는 등 총 116억원을 확보, 전 농가에 백신 비용 100%를 보조 지원한다.

백신접종을 소홀히 한 농가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추가 백신접종 명령, 축사현대화사업·백신비용지원사업 등 정부정책자금 지원 배제, 3회 이상 위반 시 농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 사육 제한 등 조치를 엄격히 적용한다.

위험 시기인 겨울철 백신 항체 양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실시한 소와 염소 2만호 67만 마리에 대한 일제접종과 돼지 미흡농가 80농가 24만 마리에 대

한 보강접종을 오는 25일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백신접종이 미흡한 농가를 사전에 확인하고 농가의 자발적 접종을 유도하기 위해 연말까지 2개월 동안 21호(1610마리)의 농장검사와 도축장검사(9500마리) 대상에 대한 항체 형성수준을 검사한다. 19일 현재 138호 1257마리를 검사했다. 검사 결과 저조농가 3호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윤보 전라남도 동물방역과장은 "구제역은 백신접종과 농가단위 차단방역만 철저히 이행하면 100% 방어가 가능하다"며 "구제역 예방을 위해 모든 개체에 백신접종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만성질환 평가' 우수

전남도가 21일 '2019 만성질환 사업기획 FMTP(Field Management Training Program) 평가대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올해 14번째 맞이하는 만성질환 사업기획 및 건강조사 FMTP 교육훈련 과정은 만성질환의 체계적 사업 기획 및 직원 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실시해왔다. 전남도는 지난 2006년부터 매년 보건소 만성질환 업무 담당자의 만성질환 전문 지식과 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훈련을 수료하게 함으로써 지역 보건정책의 중추인력을 양성해 사업 관리체계를 구축해오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

광주 공공기관 임원 임금 규제 조례안 상임위 통과

장연주 의원 발의 '살찐 고양이조례'

광주지역 공공기관 임원의 적정 임금을 규제하는 조례가 시행될 전망이다.

21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장연주(정의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 일명 '살찐 고양이조례'가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공공기관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의 적정한 기준을 정해 임원과 직원

간의 연봉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했다.

공공기관 임원은 고시된 최저임금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해 나온 금액의 6배 이내로 연봉을 받도록 권고한다.

'살찐 고양이'란 1928년 미국의 저널리스트 프랭크 켈트가 처음 언급했으며, 탐욕스러운 자본가나 기업가를 뜻한다. 이번 조례는 오는 27일 열리는 광주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아시고 전화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상담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